

긴린공원 종합안내판



킨린 공원은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마치 일본의 거문고인 고토를 연주하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뜻에서 '킨린(거문고 숲)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지며 일반적으로는 '쓰다노마쓰바라(쓰다의 소나무 숲)'라고 불립니다. 본 공원은 약 600년 전 이와시미즈 하치만구 신사의 고위직이었던 조라쿠지 사찰의 승려가 방풍림으로 소나무를 심은 것이 시초라고 하며, 현재 수령 약 600살 정도로 추측되는 흑송과, 뿌리 쪽 모래가 깎여 마치 뿌리가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모습의 네아가리마쓰 소나무를 비롯한 약 3,000그루의 소나무, 그리고 백사장이 펼쳐진 자연 해안을 갖춘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백사청송 공원에서 해수욕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일년 내내 사랑받고 있습니다.

- 부지면적 : 약 9.6ha
- 1915년 8월 24일 현립공원으로 지정. 1956년 5월 1일에 세토 내해 국립공원으로 지정. 1987년 1월 10일 일본 100대 백사청송으로 지정. 1995년 7월 10일 일본 100대 해안가로 지정. 2005년 3월 14일 카가와현 100대 자연으로 지정.
- 주변 관광지: '칠복신의 소나무', 갯메꽃 등 해변식물